

분석심리학의 네 가지 유형론과 사상인의 마음작용

최구원* · 임병학** · 오명진***

- I. 시작하는 말
- II. 사상철학의 장리·장국과 분석심리학의 자기·자아
- III. 사상인의 애노희락과 직관·사고·감각·감정
- IV. 사상인의 인사유사와 직관·사고·감각·감정
- V. 맺는말

국문초록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은 ‘사상(四象)’과 ‘네 가지 유형론’으로 인간의 마음작용을 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인의 마음작용과 분석심리학의 네 가지 유형론을 중심으로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을 비교 고찰하였다.

먼저 사상철학에서 장리(臟理)와 장국(臟局)은 분석심리학의 자기(自己)와 자아(自我)에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사상철학의 장리는 분석심리학의 자기와, 장국은 자아의 의미가 서로 통하고 있다. 사상철학의 근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장리는 내향성, 현상적 입장의 장국은 외향적 입장이 됨을 파악하였다.

다음 사상인의 애노희락과 직관·사고·감각·감정을 통해 사상인의 마음작용과 네 가지 유형론을 고찰하였다. 태양인은 사고적인 부분은 잘 할 수

*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ckwon2385@daum.net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문화재보존수복연구소 부소장 / phlim39@naver.com

*** 원광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 / ktea@daum.net

있으나 감각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감각적인 부분은 잘 할 수 있으나 사고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소양인은 직관적인 부분은 잘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태음인은 감정적인 부분은 잘하고 직관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았다.

또한 인사유사(人事有四)인 사무·교우·당여·거처와 직관·사고·감각·감정의 관계에서 사상인의 마음작용을 보면, 태양인은 외향적 사고는 잘 하지만 외향적 감각은 잘하지 못하며, 소음인은 외향적 감각을 잘 하지만 외향적 사고는 잘하지 못하며, 소양인은 외향적 직관은 잘 하지만 외향적 감정은 잘하지 못하며, 태음인은 외향적 감정은 잘 하지만 외향적 직관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제마의 사상철학이 생리적·병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정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 학문임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내면의 갈등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마음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사상철학, 사상인, 분석심리학, 유형론, 직관, 사고, 감각, 감정.

I. 시작하는 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의 사상철학은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사상(四象)을 통해 인간 마음의 근거인 천기(天機)와 인간 마음인 인사(人事), 그리고 몸으로 드러나는 성명(性命)을 밝힌 마음학이자 기철학이다.¹⁾ 그는 사람의 마음작용과 애노희락(哀怒喜樂)의 기(氣)를 근거로 태양인 · 태음인 · 소양인 · 소음인의 사상인을 나누고,²⁾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융(C. G. Jung, 1875~1961)의 분석심리학 역시 ‘유형론’을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특성들은 무엇인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정신의 지향하는 바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그 고통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를 과거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선행하여 얻은 많은 비슷한 인식과 견주어 반성의 기회로 삼기를 촉구하였다.³⁾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은 ‘사상(四象)’과 ‘네 가지 유형론’으로써 인간의 마음작용에 대한 이해와 삶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통적으로 논하는 부분이 있다. 또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특히 『주역』의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⁴⁾를 근거로 음양의 이치를 기본 토대로 한 사유체계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⁵⁾

1)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7, 머리말.

2)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3)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4) 『周易』, 「繫辭上」, 제11장,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5) 융이 만년에 『주역』에 심취한 것은 집단무의식의 연구 결과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내면세계의 신비적인 심상(心像, images)을 주로 다룬다. 그는 집단무의식의 원형들(Archetypes)이 유사심리학의 상태로써 인간 행동의 원형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론과 사상철학에서 밝힌 사상인의 마음작용을 중심으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사유체계를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심리학과 사상철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한의학에서 김인태 등의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⁶⁾과 김달래의 「사상의학에서 바라본 몸과 마음-심리학적 유형론과 연관지어」⁷⁾가 있다. 두 연구는 이제마의 사상을 의학적 측면으로만 한정하여 한의학의 일부분 정도로 인식하였으며, 지인론과 사상인을 개념 위주로 단순 비교하고 있다. 또한 이종훈⁸⁾ 등은 체질을 이해하는 정도이고, 이현구 등은 분석심리학의 주요 주제들을 『주역』에 대입하여 내재해 있는 원형을 되새겨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⁹⁾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사상인의 마음작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특히 한국철학계에서 논문은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사상인의 마음작용과 분석심리학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의 상관성을 논하기 위해 제Ⅱ장에서는 사상철학의 장리·장국과 분석심리학의 자기와 자아를 논하고, 제Ⅲ장에서는 사상인의 애노희락과 분석심리학 유형론의 직관·감정·감각·사고의 관계성을 비교하며, 제Ⅳ장에서는 사상인의 인사유사와 직관·감정·감각·사고를 직접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동·서양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주역』에서 밝힌 상(象)을 원형적 상징(Archetypal symbol)으로 삼고 활용한 것이다. (이민태, 「주역과 심리학」, 『易과 哲學』, 인쇄문화사, 1993, 329쪽 참조)

- 6) 김인태·고병희·송일병,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 제8권 제2호,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7) 김달래, 「사상의학에서 바라본 몸과 마음 - 심리학적 유형론과 연관지어」, 『스트레스 연구』 제16권 제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8.
- 8) 이종훈·조정효·정광조·손창규, 「사상체질의학을 포함한 체질론적 의학이론의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29권 제4호, 대한한의학회, 2008, 161~167쪽 참조.
- 9) 이현구·신성수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원형(原型, Archetype)」, 『인문학연구』 제26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188~191쪽 참조.

II. 사상철학의 장리·장국과 분석심리학의 자기·자아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서는 사상인의 마음작용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장리(臟理)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사람이 품부 받은 장의 이치에 네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폐는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을 태양인이라 하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이라 하고, 비가 크고 신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이라 하고,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한다.¹⁰⁾

즉, 장리는 하늘이 품부하여 준 장부의 이치로 네 가지이며, 이 장부의 이치에 따라 폐비간신이 대와 소로 나누어져 사상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 「사단론」에서는 장리와 장국에 대하여 “태음·소음·태양·소양의 장국이 짧고 긴 것은 네 가지 같지 않은 가운데에 한 가지 크게 같은 것이 있으니, 천리의 변화이며, 성인과 중인이 한 가지로 같다. 더럽고 천박하고 탐욕하고 게으른 마음의 바탕이 맑고 탁한 것은 네 가지 같지 않은 가운데에 한 가지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사람의 욕심이 넓고 좁은 것이다. 성인과 중인이 한 가지로 다르다.”¹¹⁾라고 하여, 사상인의 장리는 성인과 중인이 똑 같으나, 장국은 욕심의 청탁에 따라 한 가지로 달라지며 현상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음양의 변화는 천도의 작용으로 하늘이 품부하여 이미 정하여진 것은 장리이고, 이미 정하여진 것 외에 또한 짧고 긴 것은 장국이다.’¹²⁾라고

1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名曰少陰人.”

1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1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不全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하여, 장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지만, 장국은 마음작용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

『동의수세보원』 제4권 「사상인변증론」과 “(『황제내경』) 「영추」의 책에서 태음·태양·소양·소음·음양화평지인의 오행인론이 있어서 대략 외형을 얻었고 장리(臟理)를 얻지 못하였으니, 대개 태음·태양·소양·소음은 일찍이 옛날부터 보았지만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¹⁴⁾라고 하여, 사상철학은 장리를 근본으로 하고, 『황제내경』은 장국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사상철학에서 장리는 하늘이 품부해 준 근원적인 이치로 현상적 존재가 있기 이전의 원리라고 한다면, 장국은 장리가 드러난 ‘장부의 판국’으로 현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몸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상철학에서 사상인의 마음작용과 관계되는 장리와 장국은 분석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자기와 자아의 중심으로 논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장리는 자기(自己)와 장국은 자아(自我)와 각각 대응된다고 하겠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의식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는¹⁶⁾ 반면 ‘자기’는 글자 그대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하며,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한다는 뜻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의식-무의

13) 「의원론」에서는 “내가 의약 경험에 있는지 5천년 뒤에 나와서 앞사람들이 저술한 것으로 인하여 우연히 사상인의 장부 성리를 얻어서 책 한 권을 지으니 이름을 『동의수세보원』이다.”라고 하여, 사상철학은 장리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4) 『동의수세보원』, 「四象人辨證論」,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

15) 임병학, 「사상철학의 마음연구(2)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사상인의 마음작용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9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229~242쪽 참조.

16)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73~78쪽 참조.(의식은 외부 현실을 인식하는 기능을 말하기도 하며,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 감각과 직관으로 구성된 비합리적 차원과 외부세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고와 감정으로 구성된 합리적 차원으로 나뉜다.)

식¹⁷⁾을 포괄하여 전체로서의 그 사람의 전체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¹⁸⁾

특히 융은 자기와 자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동양사상의 핵심인 『주역』의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에서 팔괘가 생긴다.’¹⁹⁾는 변화의 법칙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심리학적 유형론의 직관형·사고형·감각형·감정형으로 논하고 있다.²⁰⁾ 이는 사상철학에서 장리를 네 가지로 논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사상철학에서는 근원적인 마음의 본성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장리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한 마음으로 장국을 설명하고 있으며, 분석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다시 구분하고, 자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는 정신세계를 말하며, 자아에 속하지 않고 연관도 없는 모든 심리적 경향과 내용들을 말하고, 의식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나의 생각·내 마음·내 느낌처럼 자아를 통

17) C. G. Jung, 한국 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2, 105~106쪽 참조.(분석심리학에서 집단적 무의식 개념을 말하였다. 이는 개인적의 근본이다. 의식은 무의식에서 비롯했다는 바탕 위에서 의식의 모체가 되는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이 된다.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무의식 층은 명백히 개인적 무의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인 집단적 무의식 위에 있다.)

18)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탐구1 그림자』, 한길사, 2012, 45쪽 참조.

19) 『周易』, 『繫辭上』, 제11장,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20) “융이 언제부터 동양사상을 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의 자서전(Jaffé A(ed.)(1962) : *Erinnerungen, Träume, Gedanken von C. G. Jung*. Zürich, Buchclub Ex Libris)에 의하면 1920년 전후경부터 『도덕경』과 『역경』등 동양사상에 접하고 있었던 것 같다. 1920년에 출판된 『심리학적 유형』(*Psychologische Typen*)에서 그의 심리학설을 설명하면서 도이센(Paul Deussen)이 독역한 노자 『도덕경』을 인용하고 있음과 1920년경 어느 여름휴가 동안 볼링겐에 있는 그의 별장 나무 밑에 앉아 수 시간 동안 역학실험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죽내, 『융 심리학과 동양사상』 하나의학사, 1988, 7~8쪽 참조.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144쪽 참조.)

해 연상되어지는 정신적 내용으로 자아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²¹⁾

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심층에는 언제나 전체가 되려고 하는 원천적 힘이 있으며, 자아의식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자체의 목적에 의하여 의식에 작용 되는데,’²²⁾ 이것을 자기 원형이라 한다. 또 의식에는 나의 전체를 통괄하고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 나아가려는 의식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실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의 개념인 ‘장리’와 ‘자기’는 자기실현을 위한 마음의 근원적·원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장국’과 ‘자아’는 근원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의식적 차원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간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 원형의 특성과 그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한 자기실현 과정을 치료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²³⁾라고 하여, 대극의 원리로 동양사상을 상반 상생의 원리로 논하고 있다. 또 융의 그림자에 대한 개념을 ‘선의 기능에 대응해서 악의 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 기능 또는 창조적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²⁴⁾라고 하여, 동양사상의 음양원리인 ‘양이 음이 될 수 있고, 음이 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21)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73~74.

22) 이부영, 앞의 책, 127쪽 참조.

23) 고희선, 「맹자(孟子) 심성론(心性論)의 심성구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정신통합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74호, 범한철학회, 2014, 27쪽 참조.

24)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93쪽 참조.

25) 개성화(Individuation)과정이라고 하여 ‘인간 정신의 대극이 일치되고 합일되어야 함을 논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일치와 합일을 이루기 위하여 의식적 자아는 개인 무의식 속에 억압된 내용을 의식화하고, 집단 무의식에 은폐된 생리적인 인간의 심성이나 본성을 자각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동양사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수도(修道)과정이라 하며, 정신의 전일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분석심리학의 개성화는 자기완성을 학문적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동양사상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이죽내, 『융 심리학과 동양사상』, 하나의학사, 1988, 7~8쪽 참조.)

분석심리학의 음양 대극의 원리는 사상철학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은 애노(哀怒)를, 태음인과 소음인은 희락(喜樂)을 중심으로 사상인의 마음작용을 논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²⁶⁾ 이러한 것은 음양원리에 바탕을 둔 사상철학의 기본적인 사유체계라 하겠다.

III. 사상인의 애노희락과 직관·사고·감각·감정

본 장에서는 「사단론」에서 논한 사상인의 애노희락 성·정기의 마음작용과 분석심리학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단론」에서는 사상인의 애노희락 성·정기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양인은 애성이 멀리 흩어지고 노정이 몹시 급하니, 애성이 멀리 흩어지면 기운이 폐에 흘러들어 폐가 더욱 성해지고, 노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간에 부딪쳐 흘러서 간이 더욱 짙이니, 태양인의 장국이 폐가 크고 간이 작게 형성된 까닭이다.

소양인은 노성이 크게 감싸고 애정이 몹시 급하니, 노성이 크게 감싸면 기운이 비에 흘러들어 비가 더욱 성해지고, 애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신에 부딪쳐 흘러서 신이 더욱 짙이니, 소양인의 장국이 비가 크고 신이 작게 형성된 까닭이다.

태음인은 희성이 널리 베풀고 낙정이 몹시 급하니, 희성이 널리 베풀면 기운이 간에 흘러들어 간이 더욱 성해지고, 낙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폐에 부딪쳐 흘러서 폐가 더욱 짙이니, 태음인의 장국이 간이 크고 폐가 작게 형성된 까닭이다.

소음인은 낙성이 깊이 확고하고 희정이 몹시 급하니, 낙정이 깊이 확고하면 기운이 신에 흘러들어 신이 더욱 성해지고, 희정이 몹시 급하니 기운이 비에 부딪쳐 흘러서 비가 더욱 짙이니, 소음인의 장국이 신이 크고 비가 작게 형

26)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哀怒之氣, 順動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성된 까닭이다.”²⁷⁾

위 문장은 사상철학의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태양인은 애성노정(哀性怒情)에 의해 폐대간소(肺大肝小), 소양인은 노성애정(怒性哀情)에 의해 비대신소(脾大腎小), 태음인은 희성락정(喜性樂情)에 의해 간대폐소(肝大肺小), 소음인은 락성희정(樂性喜情)에 의해 신대비소(腎大脾小)의 장국이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애노희락(哀怒喜樂) 성기(性氣)에서 애성기는 멀리 흩어지는 마음작용을 하고, 노성기는 크게 감싸는 마음작용을 하고, 희성기는 널리 베푸는 마음작용을 하고, 락성기는 깊고 확고한 마음작용을 하며, 애노희락 정기는 모두 몹시 급한 마음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확충론」에서는 애노희락의 성기(性氣)는 「성명론」의 천기유사(天機有四)에 결부시켜, 애성기는 천시(天時)·노성기는 세회(世會)·희성기는 인륜(人倫)·락성기는 지방(地方)과 함께 논하고, 정기(情氣)는 인사유사(人事有四)에 결부시켜, 애정기는 사무(事務)·노정기는 교우(交遇)·희정기는 당여(黨與)·락정기는 거처(居處)와 함께 논하고 있다.²⁸⁾ 즉, 애(哀)에는 천시와

27)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28) 『동의수세보원』, 「확충론」,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喜也.”라고 하여, 애노희락 性氣와耳目鼻口가 청시후미하는 天機有四과 결부되고,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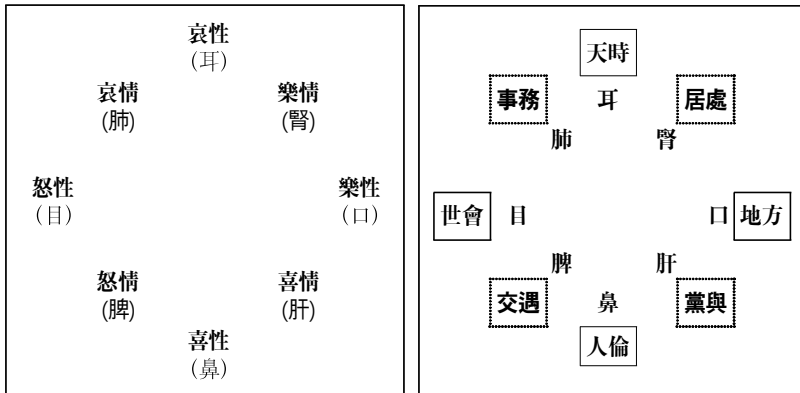
사무, 노(怒)에는 세화와 교우, 희(喜)에는 인륜과 당여, 락(樂)에는 지방과 거처가 각각 결부되게 된다.²⁹⁾

다음으로 분석심리학의 유형론인 직관·사고·감각·감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직관(直觀)은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라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고, 사고(思考)는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며,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성적인 것으로 논하고 있다. 또 감각(感覺)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며, 실용성을 추구하여 풍요로워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감정(感情)은 사람들과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공감하여 소통을 잘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³⁰⁾

이에 애노희락의 마음작용과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애(哀)의 멀리 흠여지는 마음은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천시(天

노희락 情氣는 폐비간신이 달함입정하는 人事有四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확충론』의 자세한 내용은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확충론』의 哀怒喜樂과 天人性命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 29)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주해(註解)에서 사용한 『주역』의 문왕팔괘도의 그림을 통해 애노희락과 天機有四·人事有四의 관계에 대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7, 참고)



- 30) 특히 분석심리학의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에 관한 설명은 이부영의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자 한다.

時)와 사무(事務)가 있어서,³¹⁾ 분석심리학의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객관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탁월하다’³²⁾는 것과 연결되며, 이는 직관과 통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로 유형론의 직관과 연결된다.

또 노(怒)의 크게 감싸는 마음은 세상의 공명정대한 모임인 세회(世會)와 교우(交遇)가 있어서,³³⁾ 분석심리학의 ‘의식에서는 보편성·객관성과 무사공정·원리원칙을 지향하는데’³⁴⁾라는 것과 연결되어 유형론의 사고와 관계되며, 희(喜)의 널리 베푸는 마음은 사람과 대상 사물들을 포용하고 응집하는 인륜(人倫)과 당여(黨與)가 있어서,³⁵⁾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쉴 새 없이 쌓아 나가는 것을 잘한다는’ 것과 ‘외부적 사실을 재빠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계를 맺는 데 비상한 재간이 있다.’³⁶⁾라는 것과 연결되어, 유형론에서 감각의 의미와 상통하게 된다.

또 락(樂)의 깊고 확고한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안정적인 지지와 동의를 의미하는 지방(地方)과 거처(居處)가 있어서,³⁷⁾ 분석심리학의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탁월한 외향적 감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맞추어 주는 것을 잘한다.’³⁸⁾라는 것과 연결되어 유형론의 감정과 결부된다.

31) 애(哀)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의 몸에서 드러난다는 뜻이 있다. 한자 풀이는 임병학의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골든북스, 2016.)을 참고하였다.

32) 이부영, 앞의 책, 189쪽 참조.

33) 노(怒)는 성내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잡아서 사용한다는 뜻이 있다.

34) 이부영, 앞의 책, 165~166쪽 참조.

35) 희(喜)는 기쁨을 넘어서 선비의 길한 말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뜻이 있다.

36) 이부영, 앞의 책, 181~182쪽 참조. (『동의수세보원』, 「성명론」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이라고 한 것은, 마음의 본성을 잘 실천하고 행한다면 식견·위의·재간·방략이 생긴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들의 감정적·정서적 관계를 잘하면 재간이 생긴다는 것으로 유형론의 감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37) 락(樂)은 진리가 작게 작게 드러나는 즐거움으로 신도(神道)가 행해지는 뜻이 있다.

38)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173쪽 참조.

또한 애노희락과 직관·사고·감각·감정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단론」에서는 “폐기는 곧게 펴고, 비기는 위엄과 포용성이 있고, 간기는 너그러움과 느슨함이 있고, 신기는 따뜻하게 쌓는다.”³⁹⁾라고 하여, 폐비간신의 기와 마음작용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폐기(肺氣)의 직(直)과 직관(直觀), 비기(脾氣)의 율(栗)은 사고, 간기(肝氣)의 완(緩)은 감각, 신기(腎氣)의 온(溫)은 감정(感情)과 연계되기 때문에 애(哀)는 직관, 노(怒)는 사고, 희(喜)는 감각, 락(樂)은 감정에 각각 결부된다.⁴⁰⁾

한편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은 내향적 입장과 현상적 입장으로 논하고 있는데,⁴¹⁾ 이는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정기와 대응된다. 성기(性氣)가 내향적 입장이라면, 정기(情氣)는 외향적 입장이 되는 것이다.⁴²⁾

애노희락의 성기(性氣)는 천기(天機)를 청시후미하는 이목비구(耳目鼻口)와 결부되기 때문에 본체적 의미이고, 정기(情氣)는 인사(人事)를 달함입정하는 폐비간신(肺脾肝腎)에 결부되기 때문에 현상적 작용의 의미이다.

이에 사상인의 애노희락 성·정기와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을 연결하면, 태양인의 애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직관과 노성기는 외향적 사고에 배치되며, 소양인의 노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사고와 애정기는 외향적 직관과 배치되며, 관련되며, 태음인의 희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감각과 락정기는 외향적 감정에 배치되며, 소음인의 락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감정과 희정기는 외향적 감각에 배치된다.

3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肺氣, 直而伸, 脾氣, 栗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 溫而畜.”

40) 「화충론」에서는 애노희락과 폐비간신의 관계를 애(哀)와 폐(肺), 노(怒)와 비(脾), 희(喜)와 간(肝), 락(樂)과 신(腎)을 결부하고 있다.

41)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을 내향적·외향적 태도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며, 내향적 태도는 객체보다 주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외향적 태도는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주로 객체일 때 그의 태도는 외향적이며,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객체보다도 주체이면 그의 태도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사상철학에서 논하고 있는 본질적·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노희락의 성기를 내향적과 연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기적 부분을 외향적과 연결시킬 수 있다.

사상인의 마음작용을 현상적 입장인 외향적 직관·사고·감각·감정 위주로 대응시키면, 태양인은 외향적 사고는 잘하고 외향적 감각은 잘못하고, 소양인은 외향적 직관은 잘하고 외향적 감정은 잘못하고, 태음인은 외향적 감정은 잘하고 외향적 직관은 잘못하고, 소음인은 외향적 감각은 잘하고 외향적 사고는 잘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⁴³⁾

또한 「확충론」에서는 사상인의 성·정기의 마음작용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양인은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소양인은 항상 들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태음인은 항상 고요하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소음인은 항상 거처하려고 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⁴⁴⁾

“태양인은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소음인은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소양인은 항상 밖으로 이기고자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으며, 태음인은 항상 안으로 지키고자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⁵⁾

즉, 태양인 애성기의 마음작용은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소양인 노성기의 마음작용은 항상 들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태음인 희성기의 마음작용은 항상 고요하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소음인 락성기의 마음작용은

43) 분석심리학의 유형론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설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즉, 단순한 머리로 생각하고 꾸며낸 논리적 사고의 결과도 아니고, 실험적·통계적 고찰의 결과도 아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살펴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엮은 가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상적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외향적 직관·사고·감각·감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하고자 한다.

44) 『동의수세보원』, 「擴充論」,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4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

항상 거처하려고 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기의 입장에서 사상인의 마음작용과 연결시켜 보면, 태양인의 노정과 소음인의 회정기, 소양인의 애정기와 태음인의 락정기도 서로 대대적 관계로, 태양인의 노정기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고, 소음인의 회정기는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소양인의 애정기는 항상 밖으로 이기고자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고, 태음인의 락정기는 항상 안으로 지키고자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인의 성·정기의 마음작용과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을 연결하면, 태양인은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함으로 외향적 사고를 잘하고, 물려서지 못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 감각은 잘하지 못하며, 소음인은 항상 거처하려고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함으로 외향적 감각을 잘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 사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 소양인은 항상 들려고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함으로 외향적 직관은 잘하지만 내려놓지 않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 감정은 잘 못하며, 태음인은 항상 고요하려고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함으로 외향적 감정은 잘하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 직관은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V. 사상인의 인사유사(人事有四)와 직관·사고·감각·감정

본 장에서는 사상인의 인사유사(人事有四)와 분석심리학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의수세보원』 제1권 「성명론」에서는 “인사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거처이고, 둘째는 당여이고, 셋째는 교우이고, 넷째는 사무이다. …… 폐는 사무

에 통달하며, 비는 교우에 합하며, 간은 당여를 세우며, 신은 거처를 정한다.”⁴⁶⁾라고 하여, 인간의 네 가지 마음작용인 인사유사를 사무(事務)·교우(交遇)·당여(黨與)·거처(居處)로 밝히고 있다.

인사유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고,⁴⁷⁾ 교우는 세상의 인격적 모임으로 사람과 사람·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원리로 이것은 사람의 공공적 또는 이성적 가치 판단의 마음으로 논하고 있다. 또 당여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사람이 관계를 맺게 하는 원리와 기준을 실천하고 행한다는 의미로 사람의 정서적 또는 감정적 가치 판단의 마음으로, 거처는 하늘이 품부한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도덕적·운명적 마음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이에 인사유사의 사무·교우·당여·거처를 다시 분석심리학의 직관·사고·감각·감정과 연관시키면, 사무(事務)는 마음의 본성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마음으로 이성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 파악 또는 통찰로써 인식한다는 의미의 직관(直觀)과 연계되며, 교우(交遇)는 사람의 공공적·이성적 판단의 마음으로 원리원칙과 이성적 판단이 특징인 사고(思考)와 연결된다. 또 당여(黨與)는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또는 감정적 가치 판단의 마음으로 외부적 사실을 재빠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재간을 가지고 관계 맺는 것을 잘하는 것이 특징인 감각(感覺)과 관계되고, 거처(居處)는 도덕적·운명적 관계 맺음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감정의 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에서 유형론의 감정(感情)과 배치

4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邇也.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47) 事는 一과 口, 크와 丿로, 한 사람이 손으로 하늘의 작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事務는 하늘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임병학,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6.)

48)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7, 40쪽.

됨을 알 수 있다.

「확충론」에서는 사상인의 인사유사의 능함과 능하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양의 비는 능히 교우를 용감하게 통솔하고, 태양의 간은 당여를 아름답게 바로 세우지 못한다. 소음의 간은 능히 당여를 바로 아름답게 세우고, 소음의 비는 교우를 힘 있게 통솔하지 못한다. 소양의 폐는 능히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고, 소양의 신은 거처에 항상 안정하지 못하며, 태음의 신은 능히 거처에 항상 안정하고, 태음의 폐는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지 못한다.”⁴⁹⁾

즉, 사상인의 인사유사의 잘함과 잘하지 못함을 분석심리학의 직관·사고·감각·감정에 연결하여 살펴보면, 태양인은 애성노정이기 때문에 애성과 노정에 결부되는 천시는 넓게 통하고, 교우는 용감하게 통솔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상적 측면으로 작용되는 외향적 직관·사고·감각·감정 위주로 배치시키면, 촉급한 장국에 해당되는 사고는 잘하고, 소한 장국에 해당하는 당여는 잘하지 못하므로 감각적 부분은 못하는 것이다.⁵⁰⁾

소음인은 락성희정이기 때문에 락성과 회정에 결부되는 지방은 넓게 통하고, 당여는 아름답게 세우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론의 감각적 부분을 잘한다. 하지만 소한 장국에 해당하는 교우는 잘하지 못하므로 통찰적 사고에

4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50) 「사단론」의 애노희락 성기와 정기, 장국의 대소(大小)를 통해 사상인의 폐비간신을 대(大)한 장국, 소(小)한 장국, 촉급(促急)한 장국, 평(平)한 장국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양인의 경우 애성노정(哀性怒情)에 따른 폐대간소(肺大肝小)이기 때문에 대한 장국은 폐(肺), 소한 장국은 간(肝), 촉급한 장국은 비(脾) 그리고 평한 장국은 신(腎)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상인도 이것으로 미루면 된다.(임병학,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애노희락과 사상인 장국의 대소 형성에 관한 고찰-『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참조)

해당되는 부분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소양인은 노성애정이기 때문에 노성과 애정에 결부되는 세회는 넓게 통하고 사무는 민첩하고 통달하게 잘하므로, 직관적 통찰의 부분은 잘하고, 소한 장국에 해당하는 거처는 잘하지 못하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못하는 것이다.

태음인은 회성락정이기 때문에 회성과 락정에 결부되는 인륜은 넓게 통하고 거처는 항상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거처는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적 부분을 잘하고, 소한 장국에 해당하는 사무는 잘하지 못하므로 통찰적 직관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확충론」에서는 사상인의 사무·교우·당여·거처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양인은 교우를 하는데 삼가는 것은 항상 생소인과 교우를 맺을 때 생각하고 근심하는 성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행하려는 절제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극한 선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당여를 맺을 때 경솔하게 하는 것은, 매번 친숙하려는 당여인으로 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면서, 치우친 성념이 장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잘 분별해서 사귀려는 마음이 넓지 못한 까닭이다.

소음인은 당여를 하는데 삼가는 것은 항상 친숙인과 당여를 맺을 때 잘 분별해서 사귀려는 기쁨의 마음 때문으로,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행하려는 절제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극한 선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교우를 맺을 때 경솔하게 하는 것은, 매번 생소한 교우인으로 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면서, 치우친 기쁨이 장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생각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주밀하지 못한 까닭이다.

소양인은 사무를 하는데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밖에 나가 일으키려는 사무의 슬픈 마음 때문으로,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행하려는 절제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극한 선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 거처를 맺을 때 삼가지 안하면, 매번 기본적으로 안을 쌓으면서 살려는 거처인으로 부터 모함을 당함으로서, 치우친 슬픔이 장을 상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밖을 중하게 여기고 안을 경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태음인은 거처를 하는데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안을 쌓으면서 살려는 거처의 즐거운 마음 때문으로,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행하려는 절제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극한 선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 사무를 맺을 때 삼가지 안하면, 매번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 일으키려는 사무인으로 부터 속임을 당함으로서, 치우친 즐거움이 장을 상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안을 중하게 여기고 밖을 경하게 여기는 까닭이다.”⁵¹⁾

위 문장을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태양인은 원래 깊게 사고하는 부분을 잘하나 삼가는 것은 태양인의 당연한 마음으로, 항상 생소인과 교우를 맺을 때 생각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즉,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하려는 본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약 원래 잘 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부분과 관계를 맺을 때 경솔하게 하면 당여인으로 부터 모함을 당할 수 있고 지나친 성냄으로 폐(肺)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소음인은 원래 감각적인 부분과 관계 맺는 것을 잘하나 삼가는 것은 소음인의 당연한 마음으로, 항상 친숙인과 당여를 맺을 때 잘 분별해서 사귀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하려는 본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원래 잘 하지 못하는 통찰적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 관계를 맺을 때 경솔하게 하면 생소한 교우인으로 부터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지나친 기쁨으로 신(腎)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소양인은 원래 직관적인 부분은 잘하며 중하게 여기는 것은 소양인의 당연한 마음으로, 항상 밖에 나가 일으키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5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而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偏怒, 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而輕於交遇故, 每爲生疎交遇人所誣而偏喜, 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少陽人, 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而不謹於居處故, 每爲主內傲居處人所陷而偏哀, 傷臟, 以其重外而輕內故也. 太陰人, 重於居處故, 恒有主內傲居處之樂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而不謹於事務故, 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而偏樂, 傷臟, 以其重內而輕外故也.”

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하려는 본래의 성품에서 나오며, 원래 잘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삼가지 안하면 기본적으로 안을 쌓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처인으로부터 모함을 당할 수 있고 지나친 슬픔으로 비(脾)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태음인은 원래 감정적인 부분을 잘하며 중하게 여기는 것은 태음인의 당연한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안을 쌓으면서 살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이런 마음은 나중에 후회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원래 잘하지 못하는 직관적인 통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관계를 맺을 때 삼가지 안하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 일으키려는 사무인으로 부터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지나친 즐거움으로 간(肝)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⁵²⁾

따라서 인사유사인 사무·교우·당여·거처와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을 연결하여 보면, 태양인은 교우는 잘하고 당여는 잘하지 못하므로 외향적 사고는 잘 하지만 외향적 감각은 잘하지 못하며, 소음인은 당여는 잘하고 교우는 잘하지 못하므로 외향적 감각을 잘 하지만 외향적 사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소양인은 사무는 잘하고 거처는 잘하지 못하므로 외향적 직관은 잘 하지만 외향적 감정은 잘하지 못하며, 태음인은 거처는 잘하고 사무는 잘하지 못하므로 외향적 감정은 잘 하지만 외향적 직관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V. 맺는말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은 ‘사상’과 ‘네 가지 유형론’으로써 인간의 마음작

52) 본 장에서는 특히 분석심리학 유형론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데, 경험과 현상적·작용적 측면을 위주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상철학의 성·정기에서 정기적 입장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철학의 인사유사와 유형론을 연결시켜 보면 사무와 외향적 직관·교우와 외향적 사고·당여와 외향적 감각·거처와 외향적 감정과 연관되며 이러한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용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상철학에서 사상인의 마음작용은 현상 이전의 근원적인 이치로서의 장리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장국과의 관계임을 파악하였고, 분석심리학 유형론에서 사람의 네 가지 유형의 마음작용은 역시 전체이면서도 내향성으로 나타나는 ‘자기’와 의식의 중심이자 외향성으로 파악되는 ‘자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상철학의 ‘장리’는 분석심리학의 ‘자기’와, ‘장국’은 ‘자아’의 의미와 상통하고 있다.

특히 용은 분석심리학에서 스스로를 철학자가 아니고 경험론자이며, 현상학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외향적 유형론의 직관·사고·감각·감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사상철학의 다음 2가지 방면의 관점에서 마음작용을 대비시켜 보았다. 즉, 사람의 네 가지 유형의 마음작용인 애·노·화·락의 성·정기와 현상적 입장인 인사유사에 해당하는 사무·교우·당여·거처를 직관·사고·감각·감정과 연결하여 고찰한 것이다.

애(哀)는 직관, 노(怒)는 사고, 화(喜)는 감각, 락(樂)은 감정에 각각 결부되는데, 태양인의 애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직관과 노정기는 외향적 사고에 배치되며, 소양인의 노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사고와 애정기는 외향적 직관과 배치되며, 태음인의 화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감각과 락정기는 외향적 감정에 배치되며, 소음인의 락성기는 유형론의 내향적 감정과 화정기는 외향적 감각에 배치된다.

또한 태양인은 사고적인 부분은 잘 할 수 있으나 감각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소음인은 감각적인 부분은 잘 할 수 있으나 사고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양인은 직관적인 부분은 잘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태음인은 감정적인 부분은 잘하고 직관적인 부분은 잘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았다.

본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과 지나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여 삶에 접목한다면 궁극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제마의 사상철학이 생리적·병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정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 학문임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사상철학과 분석심리학은 『주역』에서 말하는 우주의 변화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상철학과 서양의 분석심리학이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내면의 갈등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마음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周易』

『書經』

李濟馬, 『格致蒙』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_____, 『노자와 융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길사, 2012.

_____, 『분석심리학의 탐구1 그림자』, 한길사, 2012.

이죽내, 『융 심리학과 동양사상』, 하나의학사, 1988.

C. G. Jung, 한국 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숲출판사, 2002.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7.

_____,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6.

고희선, 「맹자(孟子) 심성론(心性論)의 심성구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정신통합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74호, 범한철학회, 2014.

김달래, 「사상의학에서 바라본 몸과 마음-심리학적 유형론과 연관지어」, 『스트레스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2008.

김인태 · 고병희 · 송일병, 「융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8-2, 사상체질의학회, 1996.

이현구 · 신성수,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원형」, 『인문학연구』 2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임병학, 「사상철학의 마음 연구(1)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사상심에 대한 고찰」,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_____, 「사상철학의 마음연구(2)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사상인의 마음작용 고찰」,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_____,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의 哀怒喜樂과 天人性命 고찰」, 『民族文化』 44, 한국고전번역원, 2014.

_____, 「『주역』의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동의수세보원』 「성명론」 고찰」, 『퇴계학

- 과 유교문화』 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 , 「이제마 사상철학에 있어서 마음공부」,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015.
- , 「문왕팔괘도에 근거한 애노희락과 사상인 장국의 대소 형성에 관한 고찰-『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2, 한국동서철학회, 2014.

Abstract

The Four Typologie of analytical Psychology and mind practice of Sasangin

Choi, Ku-Won

Lim, Byeong-Hak

Oh, Myong-Jin

Sasang-philosophy discusses the mind practice of human with 'four shapes' and analytical psychology discusses the function of human mind with 'four typologies'. In this thesis, Sasang-philosophy and analytical psychology were compared with the mind practice of Sasangin and 'four typologies' of analytical psychology as a center.

First, in Sasang-philosophy, Jangri(臟理) and Jangguk(臟局) are connected with oneself body and self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Jangri of Sasang-philosophy communicates with oneself body of analytical psychology and Jangguk is communicating with self. Jangri that has a fundamental viewpoint of Sasang-philosophy is introversion, and Jangguk of phenomenal position is extroversion.

Next, I examined the typology of analytical psychology and the mind practice of Sasangin through the all sorts of emotion, temperament of Sasangin and intuition, thought, sensation, and emotion. Taeyangin can do the thinking part well but the do not well in sensory part and Soeumin can do the sensible part well but do not well at thinking part and the Soyangin does the intuitive part well and is not good at the

emotional part, Taeumin is good at the emotional part and is not good at the intuitive part.

In addition, when I look at the mind practice of Sasangin in the relation of the office work, friend relationship, Dangyeo and dwelling and the intuition, the accent, the sense, and the emotion, Taeyangin is good at extrovert thinking but not good at extroversion, Soeumin is a good outward sense, but do not extrovert thinking well, Soyangin is good at extroversion intuition but not at extrovert feelings, Taeumin is good at extrovert feelings but not at extrovert intu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reveal that the Sasang-philosophy of Lee Je-Ma is beyond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dimension, including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mension. If Sasang-philosophy and analytical psychology are studied and developed together, It will help not onl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ife to many people who live in the world but also to healing the mind.

key words

Sasang-philosophy, Sasangin, analytical psychology, Typologie, intuition, thinking, sense, emotion